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문예부흥의 시발점인 올림픽준비와 함께 정치의 안정, 경제의 안정, 사회의 안정등 모든 방면에 안정이라는 부흥운동의 시발점에 있다.

우리 건축사 또한 이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고 공유하며 자연에서 태어난 우리가 자연의 조형물을 만드는 선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또한 우리의 권리를 찾고 봉사하는 건축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 6. 25, 4. 19, 5. 16등 민족수난속에 고생해 온 선배 건축사의 뜻을 조금이나마 받든다는 차원에서 젊은 건축사들의 올바른 건축관 정립이야말로 선배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본인 또한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여 선배들의 형설의 공을 받들고 더욱 계승발전시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확보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제 우리 조국은 단군창조 이래 최대의 안정기를 맞을 수 있는 시점에서 자연조형물의 창조자며 무형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왜, 남의 집 설계는 잘해주면서 정작 자기의 보금자리는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을 들어 왔는가? 바로 등잔밑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며 비건축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비건축인을 계몽, 선도하여 건축에 관한 문제만큼은 우리 건축사의 책임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되겠다.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오, 뉴우턴, 그리고 금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의 근본은 기술자이고, 우리 건축사 또한 예술을 겸비한 기술자가 아닌가?

젊은 건축사들의 진취적인 노력여하가 선배 건축사의 뜻을 잘 받드는 관건이다.

선배, 후배건축사 그리고 사회 각계층 선배, 후배여러분!
현대는 숭고문, 숭상무 시절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정세속에 지나친 술로서

2000년을 향한 건축사의 자세

申鍾浩
眞豊 건축사사무소

건장을 해치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과연 어떤 본보기가 되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궁화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사는 물론, 사회 각계층 여러분 모두 각자 자기 여건에 주어진 임무에 정열을 쏟는 자세야말로 이 나라를 진정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 후배 여러분!
우리 건축사들도 이제 단순한 쟁이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사회 시대 내 만큼 다방면에 박식한 지식을 갖추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부하면서 수수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떳떳하게 명함을 내놓고 수수하는 바로 그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건축법을 준수하는 우리는 조국의 꽃의

한부분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후배 건축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때입니다. 본인 또한 열심히 보고, 배우고,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 각계층 선배, 후배여러분!
지금까지 건축사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평당 1만2천원, 1만5천원이니 하는 식으로 자연의 조형물 창조자며 무형의 자산 소유자이며, 건축설계를 무한대까지 노력하여 인생설계 차원으로 노력하는 건축사들의 깊은 마음들을 너무나 실망시키지나 않았는지요? 우리에게도 국가에 의무(건축법을 지키는 양심)가 있고 최소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배, 후배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는 다시말해 환태평양의 시대가 도래해오고 있음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 심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서, 아니면 문헌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열심기에 우리는 다같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때 설계비 또한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으며 그러기위해서는 두뇌, 창조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젊은 친구가 너무 바른소리 한다고 야단만 치지마시고 큰 의미로는 대한 민국의 아들이요, 좁은 의미로는 건축사로서 권리를 찾아야할 시점이 아닙니까. 이제 건축물도 도시적 차원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우리나라 국토가 비록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전국적인 현존 건축물 정도는 살살이 공부하여 두뇌속에 잘 보관하여 진정으로 건축사의 올바른 가치관을 키우며 오늘도 삼천리 금수강산 모든 분야에 꽃이 만발하고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도처 모든분야 여러분의 노고를.....